

시인의 마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기억을 더듬다 보니
 글쓰기 심사에서 만났다
 우체국 공무원이다
 자존심을 건 싸움이라 기억된다
 약자지킬 거칠게 호응하며
 잡아먹을 듯 서로를 노려보고
 옥지가리란 옥지가리는
 모두 산으로 만들어버린
 그날의 몸싸움이다
 작은 웃음거리라기엔 어설픈
 대학 신입생 시절의 아픈
 손가락이다
 아지랑이 불비처럼 내리던 그 날
 일구필사인의 그날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냥 소리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조용히 시골 일바 일당을
 벌었어야 했다
 이제 와 후회한다 무슨 소용인가?
 그래도 후회는 후회로 남는다
 눈 한 번 감고 떠보니
 저 멀리 달아난 세월 속에
 바람처럼
 벌써 잊힌 드라마 같이
 가물거물하다
 소환될 것 같지 않던 이 후회가
 햇살이 따사롭던
 문학 비평론 강의실에서
 따사로이 내려온다
 머뭇머뭇 올리던 손이
 부끄러운 듯 떨린다
 때로는 낯설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수강생은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김제구인 공고다
 일구필사를 무대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게
 스승과 제자로 만남 강의실이다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에는
 어설픈 약속가 아이러니하게
 펼쳐진다
 창문 너머
 펼쳐진 캠퍼스 정문 사자선
 도로에는
 그날처럼, 이름 모를 꽃은
 여전히 부끄러운 듯 어지럽게
 피어나고
 길길 바쁜
 자동차 경음기 소음에 놀란
 발걸음이다
 그렇게 오늘도
 볼 꺼진 신호등만이 딸깍딸깍한다
 박여범, '있는 듯 없는 듯' 전는

|| 시를 읽는다 ||

주어진 삶을 살아야 보면, 다양

한 유년의 시대를 만날 수 있다. 경
 험이 없다는 것은 다양한 업무와 사
 랑을 많이 만났다는 것을 대변한다
 고 해도 구광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은 내겐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 목음표로 던져보자.
 일의 진행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아무
 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다른 사
 람이 알게 될까? 자신의 행적이 드
 러나는 것을 단언히 해야 한 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대수들
 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진행
 하면서 분위기를 약자지킬하게 만들
 어 자신의 역할을 크게 부풀리는 이
 리석은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빛과 향기를 드러내
 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 빛과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
 바로 풀과 꽃이 그렇다. 풀은 바위
 와 험한 계곡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생명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
 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현실에서 만난 불
 과 같은 존재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의 주체는
 내가 아닌 단신이길 희망한다. 이유
 에 이유를 물어서라도 물어가는 인
 생으로 도움을 받으며 가려 한다.
 작은 인이라도 선한 것이라면 수
 지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
 면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
 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저할 없는 행동인가? 두
 러워할 줄 아는 지혜인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말하다.
 세상에 빛과 향기를 드러내
 는 것과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드러내
 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 빛과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좋은 일은 덕
 을 쌓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실
 권사에서 그 부질을 찾고자 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이다. 그 물과 공
 기와 햇빛이 한 송이의 꽃을 탄생시
 킨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은근슬
 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반면,
 생색만 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에 급급한 허접한 인간도 있다. 전
 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꽃길을 이지럽히는 존재는
 항상 멀리 있지 않다.

사설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지난 9월 17일은 남북이 유엔
 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을 맞
 는 날이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이 있었다. 냉전 구조 아래 소련
 과 중국은 우리 측 가입을 반대
 했다.
 반면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북
 한의 가입을 지지해 왔다. 유엔
 가입 이전의 우리 외교 최대 과
 제는 유엔 가입이었다. 이를 위
 해 전 세계 국가 특히 국가 수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한 외
 교 활동을 진행해왔다.
 1973년 박정희 정부 당시 우리
 정부는 6.25 선언을 통해 유엔
 동시 가입 구상을 밝혔다. 그 뒤
 노태우 정부 들어 소련과 수교
 가 시작되자 같이 트이기 시작
 했다. 결국 1991년 9월 17일 남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됐
 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냉전
 질서의 해체라는 세계 질서의
 변동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
 제사회는 한반도에서도 냉전이
 종식되길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반도의

분단은 극복되지 못했다.
 30년 동안 대결과 대화 국면을
 반복하며 현재 교착 국면까지
 이어져 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뜻대로 진
 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영
 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보였
 다.
 실제로 순항미사일에 이어 단
 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
 려시위를 했다.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9월 1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
 한 것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
 최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회원국의 입장 차이로 '뉴
 탄 공동성명'을 내기는 쉽지 않
 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정 봉쇄로 내부
 사정이 어려운 북한을 돕기 위
 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수차례 열었다. '대북 인도적 지
 원'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전망은
 '안개 속'이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절규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로의
 즉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
 계, 비수도권 3단계)의 재연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방역
 당국과 자영업자 간 갈등이 극
 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국회의원 앞에서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아집에서 벗어나 자
 영업자를 살리는 '위드 코로나'
 로 즉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
 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
 노래연습장협회, 전국스터디카
 페연합회, 청계대탐상가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협
 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지 않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
 한 자영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고 절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

움이 크다. 이들의 고통은 이제
 절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명동의 경우 임대라는 포
 지를 건 상가가 두 집 건너 한
 집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스
 스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는
 20여 명이 넘는다. 연일 200명
 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고삐를 늦추기
 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행
 스타트업도 10월 5일 현재 전 국
 민의 53%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치명률도 0%
 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조심스럽지만 방향을 전환할
 때다. 서서히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때다. 방역의 무게 중심
 을 확진자에서 중증자로 변경해
 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기름 제거 중에도 날아드는 갈매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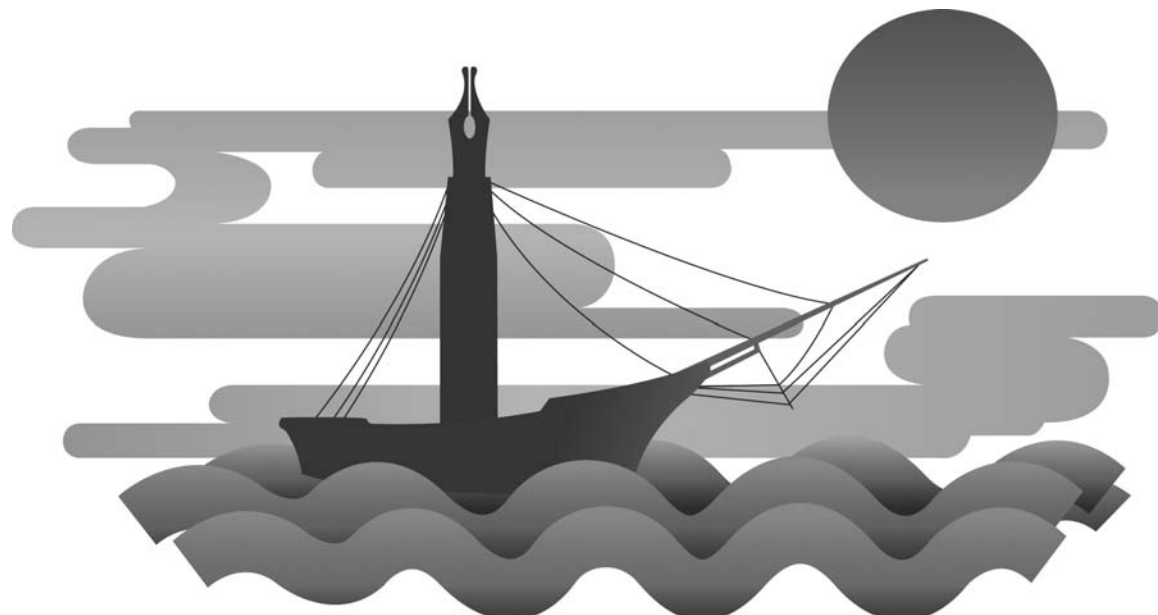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보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하는 동안 갈매기들이 모여들고 있다.

독일 크론베르크에 피어오르는 안개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크론베르크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왼편에는 텔레비전 타워가 안개 위로 조명을 밝히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